

지역상장사 1000원 벌어 806원 이자로

고유가·불황에 작년 기업 채무상환능력 떨어져

화인케미칼 적자 전환…무차입 광주신세계 유일

지난해 광주·전남지역 상장사들은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. 돈을 벌어 이자비용도 già 못하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.

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 표한 '광주·전남지역 2011년 12월 결 산법인 이자보상배율(유가증권시 장)'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·전 남 상장사의 이자비용은 총 3026억원(1사 평균 233억원)으로 전년 3515억 원에 비해 13.91% 감소했다. 영업이익은 전년도 -2256억원에서 3287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, 이자보상배율(1.24배)도 전년(-0.64배)보다 1.88 배 포인트 증가했다. 이는 영업이익 1000원 중 이자비용으로 806원이 지 출돼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쓴 것으로 분석된다.

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수수가 낮을 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쁘다는 뜻이다.